

보르네오의 별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보르네오 섬 전체 면적의 1퍼센트에 불과한 소국이지만 보르네오의 경이로운 풍광을 모두 품고 있다. 열대우림과 원시의 강, 다양한 영장류와 토착 부족이 공존하는 이곳에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이슬람 술탄 왕조가 600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글 태머라 티센 사진 파스칼 뫼니에

© Pascal Meunier / Lightmediation

BORNEO'S GREEN GEM

Brunei packs all the wonders of Borneo — tropical rain forest, indigenous tribes, wild rivers and amazing primates — into just one percent of the island's territory. This tiny nation also boasts a seductive history as a powerful and oil-rich Islamic sultanate, with an unbroken dynasty stretching back over 600 years.

By Tamara Thiessen Photographs by Pascal Meunier



원주민의 나라

브루나이 원주민 중 하나인 이반족은 과거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현재는 뱃사공, 어부, 조선 기술자로 살아간다. 이반족은 보르네오 섬 곳곳에 뻗어 있는 뱃길을 통해 선박 관련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그들 대다수가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지키며 외딴 강가에 전통 가옥 '롱하우스'를 짓고 산다. 일부 롱하우스는 길이가 60미터에 달하며 여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산다.

INDIGENOUS TRIBES

Despite a historical reputation as fearsome headhunters, the Iban, one of Brunei's major indigenous groups, have put aside such practices. Now they are known as expert boatmen, boat builders and fishermen, honing their skills on the island's waterways. Many still live a traditional lifestyle in remote riverside community longhouses. Some of these stilted abodes are up to 60m long and house up to 20 families under one roof.



수상 마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마을로 알려진 캄퐁아예르는
브루나이의 수도에 있다. 각기 다른 부락 42개가
모여 형성된 이 마을은 무려 30킬로미터에 달하는
수상 보도로 연결돼 있다. 브루나이 강을 사이에
두고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와 마주한
이곳은 학교, 성원은 물론 소방서까지 갖추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거주민 이주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길 주저하고 있다.

FLOATING VILLAGES

Considered the largest stilt settlement in the world, Kampong Ayer, in Bandar Seri Begawan, is composed of 42 individual villages linked by some 30km of stilted walkways. Facing the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on the other side of the Brunei River, the settlement has mosques, schools and a fire station. For years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locate its residents onto land, but they refuse to abandon their spiritual home.



열대의 술탄 왕국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브루나이에 전파되면서 15세기경 이슬람 술탄 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탄생한 술탄 왕국은 19세기까지 보르네오 북부 지역 대부분을 통치했다. 오늘날 브루나이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이며, 학교와 성원을 중심으로 국가 통치 철학인 '말레이 이슬람 군주제'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TROPICAL SULTANATE

By the 15th century, Muslim traders had brought Islam to Brunei, and later an Islamic sultanate was established in the country. The Sultanate of Brunei ruled over much of northern Borneo until the 19th century. Today, over three-quarters of Brunei's population adheres to the Islamic faith. Schools and mosques fuel the national philosophy, Melayu Islam Beraja, or Malay Islamic Monarchy.



황금 지붕

브루나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경은
모스크의 불빛과 둥근 지붕이 강물에 비쳐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닐까. 그중에서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낮과 밤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바로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다. 중국산 화강암과
이탈리아산 대리석 등으로 치장한 모스크 주변
인공 호수에는 왕실 선박을 본뜬 바지선이 있다.
눈부신 황금으로 뒤덮인 사원의 지붕 안쪽은
베네치아산 모자이크 조각 350만 개로 장식하였다.

GOLDEN DOME

The most beautiful nighttime views in Brunei come from the lights and bulbous forms of its mosques reflected in the rivers. An enchanting apparition day and night in the capital is the cream and gold Sultan Omar Ali Saifuddin Mosque. Built in 1958 and surrounded by an artificial lagoon in which there is a replica of a royal barge, the mosque is a lavish marvel of Shanghai granite and Italian marble. The dazzling gold dome's interior is covered by a 3.5 million-piece Venetian mosaic.

찾아가는 길

국영 항공사인 로열브루나이항공을 통해 싱가포르와 마닐라, 자카르타에서 브루나이로 갈 수 있다. 싱가포르는 1일 2회, 마닐라는 1일 1회, 자카르타는 주 6회 항공편을 운항 중이며, 브루나이 국제공항까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소요된다.

올루템부롱 국립공원

'소록빛 보석'을 뜻하는 올루템부롱 국립공원은 브루나이의 자랑이자 기쁨이다. 1988년 광활한 바투아포이 우림 내에 세워진 이곳은 브루나이 정부가 시행하는 자연 보호 운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오늘날 브루나이 대부분이 사실상 환경 보전 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산악 지형인 동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한다. 일례로 한 곤충학자는 공원 내 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00여 종이 넘는 딱정벌레를 발견했다고 한다. 공원 시설이 민영화되며 조성한 올루올루 리조트는 잘 보존된 밀림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카약을 타기도 하고, 판자를 이어 만든 7킬로미터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도 할 수 있다.

템부롱 캐노피 산책로

템부롱 캐노피 산책로는 지상 50미터 높이에 위치한 스테인리스스틸 구조물로 올루템부롱 국립공원

본부에서 강 상류 방향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브루나이 셀 석유 회사가 만든 이 산책로에 마련된 철제 다리를 통해 캐노피 상부로 올라가는 여러 개의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 캐노피 산책을 즐기는 최적의 시간대는 이른 아침이다. 붉은목도리비단나비, 긴팔원숭이, 마카크 원숭이, 코뿔새, 말레이곰, 살무사, 사향 고양이 등 브루네오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정한 주요 보전 지역 중 하나인 '보르네오의 심장' 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인근 말레이시아의 사바-시라왈 주 및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존 지구다.

가동 아시장

브루나이 강 북서쪽에 위치한 가동 지구의 아시장은 보르네오 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아시장이다. 넓은 주차장에 수십 개 노점이 가판을 펴고 지역 별미를 선보이는 이곳은 그야말로 눈과 입이 호강하는 축제의 장이다. 브루나이 요리를 포장한 쌀밥은 이곳의 주 메뉴다. 닭고기나 소고기, 멸치를 넣은 쌀밥에 매콤한 삼발 소스를 뿌리고 브루나이 요리를 이용해 피라미드나 원통 모양으로 포장해 판매한다. 달콤한 디저트로는 '쿠에 와짓'을 추천한다. 쌀을 사탕아자와 코코넛 크림에 넣고 천천히 익힌 뒤, 브루나이 요리로 싸고 설탕이 캐러멜처럼 졸아들 때까지 쪄낸 음식이다.



대한항공은 마닐라, 싱가포르, 자카르타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Jakarta, Manila and Singapore daily.

GETTING THERE

Royal Brunei Airlines links several Korean Air destinations to Brunei: Singapore (two flights daily), Manila (one flight daily) and Jakarta (six flights weekly). All flights arrive in Bandar Seri Begawan and take 2-2.5 hours.

ULU TEMBURONG NATIONAL PARK

Ulu Temburong National Park is Brunei's pride and joy, dubbed the "green jewel." Created in 1988 within the vast Batu Apoi Forest, it is an emblem of Brunei's conservation efforts, with much of the nation now fully protected as reserves.

Located in the more mountainous eastern section of the country, the park explodes with a remarkable variety of life forms; one entomologist discovered over 400 species of beetles on a single tree. At Ulu Ulu Resort, created when the park's facilities were privatized, visitors can immerse themselves in the protected jungle — kayaking, bathing in the river and hiking 7km of boardwalks.

RAIN FOREST HEIGHTS

The Temburong canopy walk is a stainless-steel pathway 50m in the sky that visitors reach after a short trip upriver

from the headquarters of Ulu Temburong National Park. The walk has metal bridges linking several ladders that take visitors to progressively greater heights in the forest canopy. The walk is best experienced in the early morning, and visitors should keep their eyes peeled for some of Borneo's most incredible fauna — gibbons, hornbills, sun bears, Rajah Brooke's Birdwing butterflies and others.

TO MARKET, TO MARKET

The Gadong district's renowned pasar malam, or night market, is one of the best in Borneo. Held in a vast parking lot, it is a feast

for the eyes and taste buds, with dozens of stallholders cooking specialties like the popular nasi katok — rice with chicken and spicy sambal sauce. Market stalls fire up in the early evening and stay open late. Nasi lemak is another market mainstay of meticulously packaged portions of rice filled with chicken, beef or anchovies and topped with sambal, all wrapped together in banana leaves. For sweets, try kueh wajid — pounded Temburong hill rice slow-cooked in palm sugar and coconut cream, then wrapped in banana leaves and steamed until the sugar caramelizes.